

파라과이 메노파(menonita) 공동체의 정착과 특성 (Characteristics of Menonita in Paraguay)

구 경 모
(Gu, Gyoung-mo)

<Abstract>

Los primeros menonitas llegaron al Paraguay por invitación del gobierno nacional. La base de ésta y las siguientes inmigraciones constituyó la Ley N° 514 del 26 de julio de 1921, en la que el gobierno paraguayo concedió derechos que habían solicitado los menonitas canadienses que luego fundaron la colonia Menno, a cambio de la colonización del Chaco. En el año 1929 un grupo de menonitas huyó a Alemania, desde ahí llegaron al Chaco de Paraguay y fundaron la Colonia Fernheim en 1930. En los años 1947~1948 refugiados menonitas de la anterior Unión Soviética fundaron la Colonia Neuland. Según las listas de los barcos eran 2.474 personas. En aquel entonces esto también fue el grupo inmigrante más grande de las tres colonias en el Chaco.

El desarrollo de las cooperativas de producción láctea en nuestro país se da en el marco de los desarrollos de las colonias de menonitas. La pérdida de rentabilidad de la actividad lechera, causada principalmente por la recesión de la economía paraguaya que se tradujo en la disminución de la demanda interna de productos lácteos, obligó a los menonitas una reconversión productiva. A mediados de los '90, estos se concentran en la producción de ganado

2 이베로아메리카 제15권 1호

vacuno sin descuidar la producción lechera, ya que son los líderes y proveedores más importantes del país, con alrededor el 75% del mercado lácteo nacional.

[Key Words: Menonita/ Inmigracion/ Paraguay/ Chaco/ Produccion Láctea]

[주제어: 메노파/ 이민/ 파라과이/ 차코/ 유제품생산]

I. 서론

라틴아메리카의 남미남부지역(conosur)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보다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럽적인 색채가 짙게 배여 있다. 이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유럽계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대거 이주한 결과이다. 이 시기에는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유럽인들이 5천 5백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인구가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의 이동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요 정착 국가로는 미국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브라질, 호주, 쿠바, 남아공, 칠레, 우루과이, 뉴질랜드, 멕시코 순이다. 이 중 남미남부지역에 속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유럽계 이민자 수는 2천 5백만 명으로 가장 된다.¹⁾ 남미남부지역으로 이주한 유럽계 이민자의 국적은 이탈리아계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페인계와 포르투갈계, 영국계, 오스트리아 헝가리계, 러시

1) 이상의 이민자 통계는 모야(Moya 1998: 13)와 디보트(Devote 2009: 45)의 논의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아계, 독일계 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아랍계와 아시아계들도 상당수가 이 시기에 남미남부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한 세기 동안 유럽인들이 남미남부지역으로 이주한 요인은 두 지역이 서로 “당기고 밀어내는(pull-push)” 인구 이동의 사회적 조건이 가능했기 때문이다(Moya 1998, 13; Devoto 2009, 51). 이 당시 유럽은 산업화와 근대적 농업의 등장으로 인구가 증가한 반면에, 많은 수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빈민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대기근과 같은 자연재앙과 경제 대공황,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이민을 가속화하였다. 특히 남미남부지역은 광활한 토지에 비하여 인구가 부족하여 각 국가들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폈으며, 이에 조응하여 유럽계 이민자가 대거 정착을 하였다. 이렇듯 당시의 주요 이민 요인은 경제 및 사회구조 변동 하에서 양 지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파라과이는 내륙국인 탓에 다른 남미남부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유럽계 이민자의 비중이 높진 않았지만, 당시 파라과이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결코 적은 수는 아니었다. 특히 파라과이는 1865년에 발발한 삼국동맹전쟁의 영향으로 인구수가 극감하여 외국인 이민정책에 적극적이였다.²⁾ 파라과이로 이주한 유럽계들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우루과이 등 인접국가에 체류한 다음에 재차 이주하여 정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수는 1887년부터 1949년까지 약 43,000명으로 추산된다(Fisher and Palau and Pérez 1997, 13). 이민자들의 국적은 이탈리아계와 스페인계, 독일계, 프랑스계, 영국계, 폴란드계, 오스트리아계, 러시아계, 체코계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들은 파라과이 사람들과 혼혈을 통해 정착하여 파라

2) 파라과이 정부는 삼국동맹전쟁이 끝난 직후인 1872년에 이민청(Oficina de Inmigración)을 설립하였고, 1881년에는 이민 정책을 법률로 제정하였다(Fisher and Palau and Pérez 1997, 24-25).

과이화(paraguayizado) 되었다.

그러나 모든 유럽계 이민자들이 파라과이에 동화된 것은 아니다. 독일계인 메노파는 개신교의 한 일파로서 다른 유럽계 이민자들과 달리 ‘그들만의 공동체’를 조직하여 그들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에스닉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흡사하다. 현지에서도 메노파는 한국계 혹은 일본계 이민 공동체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거주지역과 이주 방식에 있어서도 유사한 시기에 이주한 유럽계 이민자들과 확연히 다르다.

본고에서는 파라과이 사회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친 유럽계 이민자 집단 가운데 독립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농·축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메노파들의 정착 배경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특성은 메노파 공동체의 이민 과정과, 공동체 조직,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7개의 파라과이의 메노파 공동체 모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파라과이 메노파 공동체의 특성을 잘 볼 수 있는 대상을 별도로 범주화하였다. 메노파의 사회조직은 그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차꼬지방의 3개 메노파 공동체(Menno, Fernheim, Neuland)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러한 사회조직의 지탱을 가능하게 한 경제부문을 살펴보기 위해 메노파에서 규모가 가장 큰 3개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개의 협동조합에는 차꼬지방의 메노파를 포함하여 4개 메노파 공동체(Friesland, Volendam, Sommerfeld, Bergtal)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6개 메노파 공동체는 모두 1950년 이전에 정착했으며, 총 17개 메노파 공동체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었다.

2. 파라과이의 메노파 이민 유형과 분포

라틴아메리카의 이민은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중반의 '대규모 유럽계 이민(La gran ola de inmigración europea)'에서부터 미국의 라틴계 이민자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최근의 이민 연구는 학제적 측면에서 이민자들이 겪는 호스트 사회와의 갈등과 대립, 정체성을 통해 계급적 불평등 혹은 문화적인 소수자, 주변인으로서 이민자를 주로 다루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이민연구도 상기 시각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과 스페인의 라틴계들, 멕시코의 과테말라 이민자, 아르헨티나의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이민자. 코스타리카의 니카라과 이민자 등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특히 현재 남미남부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있게 한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중반의 유럽계 이민은 차별받는 소수자나 주변인의 성격을 내포하는 최근의 이민 연구와 대비되는 경향이 있다. 당시 유럽계 이민자들은 수적으로는 호스트 사회에서 다수는 아니었지만 계급이나 문화적으로 주변인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흡수되어 변화를 이끌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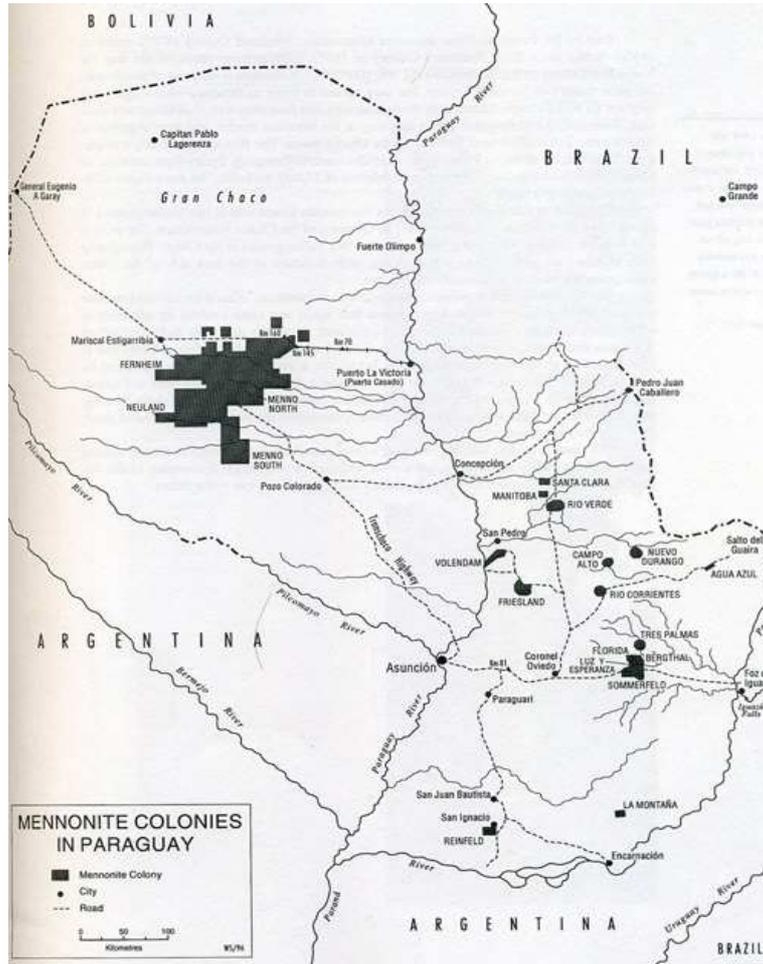
이 시기의 다양한 국적의 유럽계 이민자들은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정치 및 종교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주하였으며, 국적과 이주 배경에 따라 호스트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파라과이의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건축과 농업, 영국계 이민자들은 철도 및 산업, 프랑스와 독일계 이민자들은 의학 및 농업기술, 아랍계 이민자들은 상공업 등 각각 다른 분야에서 근대화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계 이민자들을 하나의 계급이나 집단으로 이해하기보다 이민 유형에 따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파라과이의 유럽계 이민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 위기, 두 번째는 전쟁과 학살, 세 번째는 종교적 박해이다. 첫 번째 부류는 이탈리아계와 스페인계 이민자 등 대다수의 유럽계 이민자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부류는 세계대전과 나치에 의해 이주한 유대인과 동구권 국적의 이민자들이 속한다. 세 번째 부류는 메노파와 아랍계인 마론파³⁾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민 요인은 이주과정과 정착형태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연구대상인 메노파에도 해당이 되는데, 종교 박해라는 배경은 파라과이에 정착한 유럽계 이민자들의 주요 이주 경로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남부가 아닌 북미 혹은 러시아를 통해 파라과이로 유입된 원인이 되었다. 또한 거주 및 정착 형태에서도 한적하고 고립된 지역을 택하였다. 이는 보통의 유럽계 이민자들이 철도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지역에 정착한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주 초기인 1920~30년대에 메노파들은 파라과이 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지역인 차꼬지방에 주로 정착하였다. 차꼬지방은 건조지역으로서 파라과이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미개척지로서 그들만의 고립된 정착지를 원하는 메노파에게 적합한 지역이었다. 이들은 파라과이의 차꼬 지방으로 이주하기 위해 러시아와 캐나다에서 배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빠라나 강을 지나 파라과이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빅토리아 항(Puerta La Victoria)⁴⁾에 도착하여 기차로 이동한 후 우마차를 이용하여 지금의 보케론(Boqueron) 주의 필라델피아(Filadelfia)시를 중심으로 넓게 정착하였다. 지도에서 보듯이, 메노파들은 차꼬지방에 가장 넓게 분포되어있다. 1940년대를 전후하여 척박한 차꼬지방에서 적응하지 못한 일부 메노파들은 파라과이 강을 따라 남쪽으로

3) 마론파는 기독교 집단인 관계로 유럽계 이민자로 분류하였다.

4) 까사도 항(Puerto Casado)이라고도 불림



<지도 1> 메노파 공동체 분포도(출처: Rudolf Plett 1979)

이동하여 파라과이 동부지역인 산빠드로 주에 정착하였다. 그 이후에 해외에서 유입된 메노파들은 파라과이의 동부지역에 소규모로 흩어져서

정착하였다. 이들은 모두 동부지역에서도 오지에 해당되는 까아사빠(Caazapá)주, 까닌데유(Canideyú)주, 산페드로(San Pedro)주에 주로 정착하였고, 일부는 아르헨티나 국경과 가까운 곳인 미션(Misión)주에 터를 잡았다.

차꼬지역의 메노파와 달리 동부지역에 정착한 메노파 공동체들은 자연환경과 도로 조건이 차꼬지방보다 양호한 편이어서 차꼬지방의 메노파 공동체들처럼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각 시기에 이민 온 메노파들끼리 제각기 떨어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3. 파라과이 메노파 공동체의 특성

1) 이주와 정착 과정

메노파는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가운데 나타난 개신교의 한 종파인 재세례파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금의 네덜란드와 독일 지역에서 발생했다. 메노파는 이 종파를 창시한 메노 시몬스(Menno Simons)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메노파는 평화주의자들로서 어떤 무기를 소지하지 않으며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주요 교리였다. 메노파는 종교개혁 후 독일 연방 중 가장 강성했던 프로시아에 거주하였다. 1780년 러시아의 카탈리나 2세는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정복하였고, 그 땅에 메노파가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메노파는 이주 조건으로 군복무 거부와 토지 제공, 독일어 사용을 요구하였다. 카탈리나는 2세는 그 조건을 수락하였고, 메노파들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에 정착하여 목축과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약 100년 후 러시아 정부는 메노파에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였고, 세계 1차 대전의 발발과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 메노파들의 대부분은 러시아를 떠나게 된다. 러시아의 메노파들은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파라과이로 이주하였다. 캐나다의 메노파들은 캐나다의 언어통일정책에 따라 다시 멕시코와 파라과이로 재차 이주하였다. 원래 메노파는 파라과이와 이민 요청을 하기 전에 아르헨티나로 이주하길 원했으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메노파의 군복무 면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파라과이에 정착하였다.⁵⁾

메노파가 파라과이에 정착한 것은 미국의 은행가인 사무엘 맥로버츠(Samuel McRoberts)⁶⁾의 영향이 지대하였다. 그의 친구인 캐나다 은행가가 메노파의 이주를 도와주도록 요청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는 독실한 장로교 신자인 아내의 설득으로 메노파의 이주를 책임지고 도와주기로 결정하였다.⁷⁾ 그는 1925년과 1926년에 각각 인터컨티넨탈 랜드 컴퍼니(Intercontinental Land Company)와 파라과이 협동조합Corporación Paraguaya)을 설립하여 파라과이 지역을 조사하였다. 맥로버츠의 대리인인 프레드 앵젠은 메노파가 정착하기 적당한 지역으로 차꼬지방을 발견하였다. 맥로버츠는 파라과이 대통령이었던 마누엘 곤드라(Manuel Gondra)와 아순시온에서 이주 협상을 하여 파라과이 정부의 적극적 지

5) 메노파 이주사 내용은 Plett, Rudolf, 1979, *Presencia Menonita en el Paraguay*, Asunción: Instituto Bíblico Asunción과 Bazoberry, Oscar, 2013, *Menonitas del Chaco boliviano paraguayo*, Editorial: IPDRS, Acomepa, 2012, ¿Quiénes son los menonitas? (<http://www.acomepa.org/>), Colonia Friesland, 2009, La primera colonia Mennonita en la región oriental de Paraguay. ([www.deutschinallerwelt.net/CAAL/CAAL2009.../ Colonia-Friesland.pdf](http://www.deutschinallerwelt.net/CAAL/CAAL2009.../Colonia-Friesland.pdf)), 의 자료를 통해 작성한 것이다.

6) 그는 뉴욕 국립시티뱅크(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의 부행장((1909-19)이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트러스트 컴퍼니Metropolitan Trust Company of New York) 대표(1921-25), 뉴욕 채텀-피닉스 국립은행Chatham-Phenix National Bank of New York)의 행장(1925-32)을 역임하였다.

7) <http://www.gameo.org/encyclopedia/contents/M3860ME.html>(검색일 2013.02.16).

지를 얻어냈다.

당시 파라과이 정부는 멕시코에 4천명의 메노파를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들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Benitez 2010, 1111). 또한 파라과이 정부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메노파의 이민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하나는 사막과 같은 자연환경을 지닌 차꼬 지방을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파라과이 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차꼬 지방은 파라과이 국토의 60%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지만 몇몇 원주민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다. 다른 이유는 차꼬 지방에 인구를 정착시켜 볼리비아로 부터의 전쟁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볼리비아는 태평양 전쟁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히면서 차꼬 지방을 점령하여 파라과이 강을 통해 대서양으로 나가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파라과이 정부는 볼리비아의 차꼬지방 입성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메노파의 정착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파라과이 정부는 메노파 이민을 일사천리로 추진하였으며, 1921년 6월 21일 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메노파 이민법(Ley 514/21)'을 통과시켰다.

LEY Nº 514/21

POR LA CUAL SE ACUERDAN DERECHOS Y PRIVILEGIOS A LOS MIEMBROS DE LA COMUNIDAD MENNONITA QUE LLEGUEN AL PAÍS

메노파 공동체 구성원 이민 특별 법안 합의

El Senado y Cámara de Diputados de la Nación Paraguaya,
reunidos en Congreso, sancionan con fuerza de LEY:

파라과이 상·하원

Artículo 1º. Los miembros de la comunidad llamada Mennonita, que lleguen al país, como componentes de una empresa de colonización, y sus descendientes, gozarán de los siguientes derechos y privilegios:

1항 우리나라에 정착한 메노파 공동체 구성원의 후손과 정착촌에 아래와 같은 특권을 부여한다.

1) Practicar su religión y su culto con entera libertad, sin ninguna restricción, y como consecuencia, hacer afirmaciones por simple si o no, ante la justicia, en vez del juramento, y estar exentos del servicio militar obligatorio en tiempo de paz y en tiempo de guerra en armas combatientes o no combatientes:

그들의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며 어떤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의 앞에 맹세한다. 전시와 평시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Fundar, administrar y mantener escuelas y establecimientos de instrucción, y enseñar y aprender su religión y su lengua que es el alemán, sin ninguna restricción:

독일어와 그들의 종교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기관과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가

12 이베로아메리카 제15권 1호

하지 않는다.

위의 법안에도 보듯이 파라과이 정부는 메노파에게 그들의 관습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메노파들은 약 50년에 걸쳐 파라과이로 이주하였다. 파라과이 거주 메노파의 공동체수는 17개이며, 메노파 인구는 수도인 아순시온에 흩어져 있는 메노파까지 모두 합하면 약 3만1천여 명에 이른다.

<표 1> 파라과이 메노파 공동체⁸⁾

8) 출처는 Acomepa 2012, ¿Quiénes son los menonitas?(<http://www.acomepa.org/>)

공동체	설립년도	출발지	정착지	주민
Menno	1926	Canadá	Chaco	9,000
Fernheim	1930	Rusia	Chaco	4,910
Friesland	1937	Ferheim	San Pedro	642
Neuland	1947	Rusia	Chaco	1,540
Volendam	1947	Rusia	San Pedro	569
Sommerfeld	1948	Canadá	Caaguazú	3,296
Bergtal	1948	Canadá	Caaguazú	2,591
Reinfeld	1966	Canadá	Misiones	210
Luz y Esperanza	1967	EEUU	Caaguazú	171
Agua Azul	1969	EEUU	Canindeyú	90
Rio Verde	1969	México	San Pedro	3,363
Santa Clara	1972	México	Concepción	310
Tres Palma	1973	Canadá	Caaguazú	220
Florida	1976	EEUU	Caaguazú	85
Nueva Durango	1978	México	Canindeyú	2,094
La Montaña	1982	EEUU	Itapúa	321
Manitoba	1983	México	San Pedro	753
Asuncion	•	•	•	1,410
합계				31,635

메노파의 파라과이 이주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20~1930년대로서 현재 파라과이에서 가장 큰 메노파 공동체가 설립되었다. 가장 먼저 이주한 메노 공동체는 1927년에 캐나다에서 건너 왔으며, 공동체를 메노(Menno)라 명명하였다. 메노는 파라과이 정부로부터 1헥타르 당 12달러에 56,250헥타르의 땅을 구입하여 정착하였다(Plett 1979). 현재 메노는 약 9,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메노파 공동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다. 1930년에는 러시아에서 건너온 메노파들이 페른하임(Fernheim)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헥타르 당 20달러에

15,680헥타르의 토지를 구입하였다(ibid). 페른하임은 메노파 공동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1937년에는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페른하임 공동체에서 적응하지 못한 일부 메노파들이 파라과이의 동부지역인 산페드로 주에 정착하여 프라이슬란트(Friesland) 공동체를 조직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40년대 이후로서 메노파들이 1947년에서 194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주를 하였다. 이 당시 메노파들은 러시아 정부가 그들을 시베리아로 추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파라과이로 넘어왔다. 이렇게 해서 1947년에 메노파들은 두 개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중 하나 네우란트이며 다른 하나는 블렌담이다. 네우란트는 차꼬지방에 터를 잡은 기존의 공동체인 메노와 페른하임 옆에 정착하였다. 네우란트는 차꼬지방에 정착한 마지막 공동체로서 74,120 헥타르를 구매하였다(ibid). 블렌담은 프라이슬란트가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공동체를 건설하였다. 1948년에 건너온 메노파들은 캐나다에서 이주하여 까아과수 주에 정착하여 쑤머펠트(Sommerfeld)와 베르그탈(Bergtal) 공동체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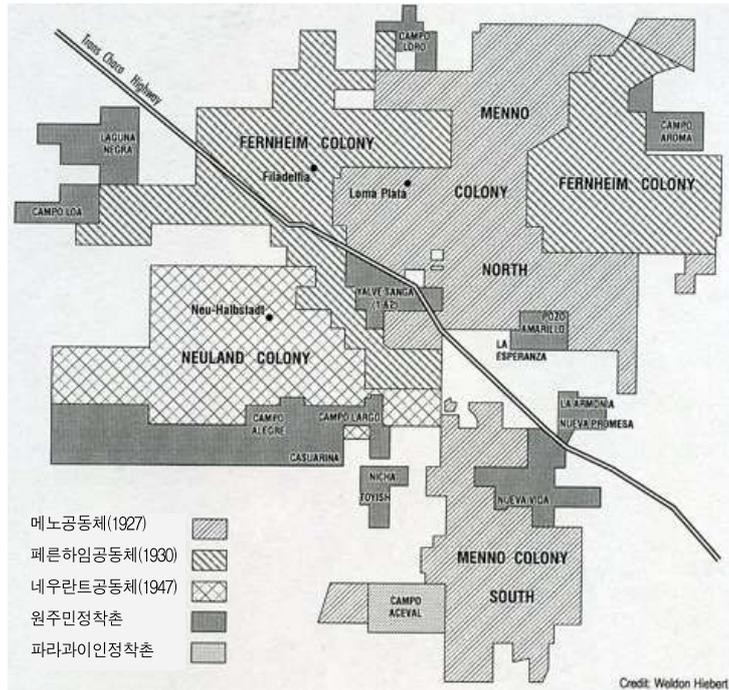
세 번째 시기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해당된다. 1960년대 이후에는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소규모로 이주했으며, 특히 사항은 메노파들이 1969년, 1972년, 1978년과 1983년에 멕시코에서 이주하였다. 특히 1969년과 1978년에는 각각 약 2~3천명 이상이나 되는 꽤 많은 수의 메노파들이 파라과이에 정착하였다. 수도인 아순시온에도 메노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략 14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메노파 공동체를 벗어나 살고 있다.

차꼬 지역의 보께론 주에 거주하는 메노파 공동체는 1만 5천명 정도로 그 이외에 지역의 메노파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며, 파라과이에서 협

동조합과 농·축산업에서 두각 나타내고 있는 메노파 공동체들은 모두 시기적으로 1960년대 이전에 정착한 부류들이다.

2) 메노파 공동체의 조직 구성

메노파는 철저하게 파라과이의 행정구역과 별개로 독립적인 도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혼인도 메노파간에 하도록 장려한다. 메노파가 다른 외부인과 결혼을 하면 메노파 공동체에서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라과이 사람들은 메노파의 폐쇄성을 한국계와 일본계 이민자 집단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메노파의 교리에 입각한 윤리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의 신조는 무저항·평화주의와 일부일처제(부부이외의 성교금지), 세상과 격리되어 지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독립적이고 고립적인 메노파들의 성향은 그들의 건설한 도시의 공간영역에서 잘 드러난다.



<지도 2> 차꼬지방의 메노와 공동체 거주지역 평면도(출처: Plett, Rudolf, 1979)

위의 지도는 차꼬 지방의 세 개의 메노와 공동체들의 입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거주 평면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원주민 정착촌과 파라과이인 정착촌이다. 메노파들은 원주민과 파라과이인의 정착촌을 분리해놓았다. 원주민 정착촌은 메노파들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터전을 잃어버린 원주민과 주변 지역의 가난한 원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세 개의 메노와 공동체는 메노파-인디헤나 협동조합회(Asociación de Servicios de Cooperación Indígena Mennonita: ASCIM)를 창설하여 지정된 공간에 살고 있는 2만 여명의 원주민들이 농업 활동과 교육, 의료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메노파가 아닌 외부인의 정착지는 메노파 공동체 내의 농장이나 공장, 상업 부문에서 일하기 위해 파라과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 정착지는 메노파가 운영하는 조직인 꼬베 차꼬(Cove Chaco)에서 파라과이 노동자들을 위해 땅을 제공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외지인의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독일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교육을 하는 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 구조처럼 초기에 정착한 세 개의 메노파 공동체가 파라과이에서 사회·문화,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파라과이 서쪽의 차꼬 지방에 터를 잡은 이유도 세상과 격리되고자 하는 교리적인 신념에 의한 것이었다. 메노파 공동체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자치국가의 형태처럼 자체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데, 파라과이 메노파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인 메노 공동체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특성이 잘 드러난다.

메노 공동체는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장(Administrador General) 아래에 시민협의위원회와 협동조합위원회를 두고 있다. 시민협의위원회에서는 교육과 보험, 보건, 재정, 치안, 통신, 종교 등 일상생활 영역부문의 모든 일들을 총괄 관리·운영한다. 협동조합위원회는 농축산업 및 상업, 공장, 회계, 대출 등 경제 및 금융, 산업에 대한 부분을 담당한다.

두 번째로 큰 페른하임 공동체의 경우도 메노 공동체와 유사한 행정 조직을 지니고 있는 데, 이 공동체는 생산협동조합과 시민협회, 공동체 협동조합 등 3개 기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생산협동조합은 도로 및 도시 인프라, 산업 시설 및 병원, 학교, 교회 등 공공건물 건설을 담당한다. 시민협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과 병원 및 보건소, 우체국의 운영을 책임진다. 언어 교육의 경우는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가르친

다. 공동체 협동조합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계된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한다. 이 조합은 소비 물품의 구입과 생산물의 판매를 전담하며 신용 대출 및 예금 등의 은행 업무, 그리고 서점과 약국, 호텔, 슈퍼마켓, 정비소, 금속 세공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운영한다.

메노파 이민 공동체의 독립성과 폐쇄성은 다른 유럽계 이민자들이 파라과이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파라니어를 사용하면서 동화되는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물론 초기 유럽계 이민자들 중에 메노파와 유사하게 같은 국적 사람들 간에 혼인을 하거나 그들만을 공동체 조직을 구성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이민 초기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 성격도 친목도모 수준에 불과하였다.

최근 들어 메노파 공동체에서도 독일어와 함께 스페인어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건설로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메노파들은 외부인의 거주구역을 따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외부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부의 사법기관 혹은 경찰기관으로 인도한다. 이렇듯 메노파들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들의 독자적인 행정 및 경제 조직, 종교적 신념을 침해받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4. 메노파 공동체의 경제적 성장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메노파들과 비교하여 파라과이에서 메노파들이 고립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종교적 교리와 이주 과정 및 파라과이 정부의 지원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외에도 경제적 측면을 빼놓을 수 없다. 메노파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장과 산업시설, 학교, 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메노파들의 경제적 성장은 파라과이 농·축산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노파들은 매년 3만 헥타르의 토지에서 목화, 사탕수수, 땅콩, 깨 등을 재배하며 주력 산업인 축산에서는 주로 소를 이용한 육류와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메노파는 매년 36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전체 육우 수출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유제품의 경우에는 매년 일억 천만 리터 이상을 생산하는데, 이는 2002년 기준으로 파라과이 총 유제품 생산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라과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Vázquez 2007, 8). 메노파들의 영향으로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Nestlé)와 파르마라트(Parmalat)의 유제품 시장 점유율은 파라과이에서 20%에 불과하다.

<표 2> 주요 메노파 공동체 유제품 생산량⁹⁾

(2002년 기준)

공동체명	메노	프라이슬란트	페른하임	네우란트	쥘머펠트와 베르그탈
협동조합명	조르띠세르	프라이슬란트	페른하임	네우란트	라 올란다
유제품생산량 (연간)	8천만톤		천7백만톤		4천만톤
유제품브랜드	뜨레볼(TREBOL)		팝(COOP)		락톨란다 (LACTOLANDA)

메노파들은 파라과이에서 주요한 유제품 및 육가공품 관련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협동조합은 메노파 공동체에서 설립한 조르띠세르 협동조합(Cooperativa Chortitzer)이다. 조르띠세르 협동조

9) 이 표는 바스케스(2007)의 논문 자료와 파라과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합은 육류 공장과 유제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유제품 생산은 1948년부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버터를 공급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1951년에는 우유를 생산하였고, 1954년에는 유제품 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유제품 브랜드인 트레볼(TREBOL)을 런칭하였다. 트레볼은 파라과이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단일 브랜드 유제품으로 1998년부터 프라이슬란트 공동체와 공동으로 유제품을 생산하였다. 트레볼은 1980년에 생유(生乳) 생산이 천만 리터에서 2002년에 8천만 리터로 늘어났다. 트레볼은 파라과이 메노파들의 전체 생유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메노파 다음으로 큰 규모의 공동체인 페른하임 공동체는 페른하임 협동조합에서 육류와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페른하임 협동조합은 꼽(COOP)이라는 유제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네우란트 공동체와 함께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천 7백만 리터의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네우란트 공동체는 유제품은 페른하임 협동조합과 함께 생산하지만, 육류는 네우란트 상호협동조합에서 네우란트(NEULAND)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다.

쪼머펠트와 베르그탈 공동체는 1979년에 공동으로 라올란다(La Holanda)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제품만 생산하고 있으며 락톨란다(LACTOLANDA)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락톨란다는 2002년을 기준으로 약 4천만 톤의 유제품을 생산하였다.

트레볼과 꼽, 락톨란다 등의 세 개의 브랜드는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둘세 데 레체(dulce de leche)¹⁰⁾ 등 파라과이 유제품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¹¹⁾ 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메노파 협동조합들은 2011년

10) 둘세 데 레체는 우유로 만든 것으로 빵에 발라 먹는 잼의 일종으로 갈색을 띤다.

11) 이들 유제품 브랜드이외에 유명한 것으로 콜론(COLON)이 있다. 콜론은 메노파는 아니지만 독일계 이민자들이 설립한 콜로니아스 유니다스 협동조합(Cooperativa Colonias Unidas)에서 만든 상표이다.

파라과이 10대 수출기업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메노파들의 경제적 성공은 교리적 삶을 통한 공동체 안녕과 평화, 그들 문화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폐쇄적인 조직으로서 호스트 사회에서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은 것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파라과이 사람들은 메노파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며, 오히려 메노파 공동체가 차꼬 지역의 황무지를 일구어 낸 성실함과 기술 및 경제력을 선망하고 있다.

이렇듯 메노파 공동체의 경제적 성장은 파라과이에서의 적응과 사회적 입지를 굳히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는 최근 호스트 사회와 농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멕시코나 볼리비아 메노파 공동체들과 대비되는 측면이기도 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 무렵까지 파라과이에 이민을 온 유럽계 이민자들 가운데 파라과이에 정착한 메노파 공동체의 사례를 다룬 것으로 메노파 공동체의 사회조직과 경제 부문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메노파는 당시 유럽계 이민자들과 달리 독특한 이민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유럽계 이민자들이 호스트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된 반면에서 메노파는 그와 철저히 다른 방향으로 정착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메노파의 교리 때문이다. 메노파의 교리는 평화주의 집단으로 국가의 의무, 특히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한적한 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메노파는 호스트 사회와 철저히 분리되어 거주

하였다. 두 번째의 당시 파라과이 사회의 특수성 때문이다. 파라과이는 국토의 60% 해당하는 차꼬지방 개발과 볼리비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메노파의 이민을 허락하였다. 특히 차꼬지방은 건조 지역으로서 황무지와 다름이 없었다. 즉 메노파가 파라과이에서 다른 유럽계 이민자와 달리 폐쇄적인 집단으로 존재한 것은 메노파와 파라과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파라과이 메노파의 사회조직은 표면적으로 주변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라과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파라과이보다 더 많은 메노파들이 거주하는 멕시코와 볼리비아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멕시코 치와와주의 메노파들은 멕시코 농민과의 농지 다툼과 땅값의 상승으로 2014년에 타타르스탄으로 재이주 계획을 확정하였다. 볼리비아의 메노파는 좌파 정권이자 원주민 출신의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 정권이 집권하면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거나 벌금을 내야할 처지로 몰렸다. 다른 중남미 국가의 메노파 사례와 달리 파라과이에서 메노파들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파라과이의 메노파가 정착한 입지와 관련이 있다. 차꼬 지방은 광대한 토지 규모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즉 메노파들이 정착하면서 멕시코와 볼리비아처럼 농지 다툼을 벌일 규모의 원주민이나 농민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파라과이의 산업구조와 경제규모와 관련이 있다. 파라과이는 멕시코와 비교하여 산업구조가 농·축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농·축산업에 강점이 있는 메노파가 파라과이에서 경제력을 키우기에 적절하였으며, 파라과이 자체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아 메노파들의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비대해 보인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파라과이 메노파와 멕시코와 볼리비아의 사례처럼 다른 라틴아

메리카에 정착한 메노파 공동체들과의 비교연구로 확장한다면, 파라과이 메노파 공동체의 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Gu, Gyoung-mo 구경모, *Otra República en Paraguay: Inmigrantes Europeos y etnicidad* 파라과 공화국, 또 하나의 파라과이: 유럽계 이민자와 파이레노의 종족성, *Idam Book* 이담 Boks.
- Acomepa, 2012, ¿Quiénes son los menonitas?(<http://www.acomepa.org/>)
- Benitez, María, 2010, *Inmigrantes Europeos en Paraguay 1818~1930*, Congreso Internacional 1810-2010.
- Campos, Luis, 2010, *Apuntes de Historia Económica del Paraguay. Desarrollo, Auge y Decadencia de una Economía de Enclaves*, Asunción: Intercontinental Editora S. A.
- Colonia Friesland, 2009, La primera colonia Mennonita en la región oriental de Paraguay.(www.deutschinallerwelt.net/CAAL/CAAL2009.../Colonia-Friesland.pdf)
- Devoto, Fernando, 2009, *Historia de la Inmigración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Editorial Sudamericana.
- Fisher & Palau & Pérez, 1997, *Inmigración y Emigración en el Paraguay 1870~1960*, Asunción: BASE Investigaciones Sociales.
- Moya, Jose, 1998, *Cousins and Stranger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azoberry, Oscar, 2013, *Menonitas del Chaco boliviano paraguayo*, Editorial: IPDRS.

Plett, Rudolf, 1979, *Presencia Menonita en el Paraguay*, Asunción: Instituto Bíblico Asunción.

Ratzlaff, Gerhard, 1993, *Inmigración y colonización de los menonitas en el Paraguay bajo Ley 514*. Comité Social y Económico Menonita. Asunción.

Vázquez, Fabricio, 2007, *Las reconfiguraciones territoriales del Chaco paraguayo: Entre espacio nacional y espacio mundial* en Observatorio de la Economía Latinoamericana, Nº 88.

Zalazar, Raquel 2005, *Regeneración de la sociedad Paraguaya: Aporte los Inmigrantes(1870–1904)*, Dialogos, DHI/PPH/UEM, v. 9, n. 2, p. 67–78.

<http://www.fernheim.com.py/>

<http://www.chortitzer.com.py/>

<http://www.neuland.com.py/>

<http://www.acomepa.org/>

<http://www.lactolanda.com.py/historia.html>

<http://www.abc.com.py/edicion-impresa/locales/los-menonitas--y-el-despertar-del-chaco-paraguayo-244431.html> (2013.03.12).

▣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E-mail: gmgu@bufs.ac.kr

▣ 논문투고일자: 2013년 4월 28일
▣ 심사완료일자: 2013년 6월 14일
▣ 게재확정일자: 2013년 6월 19일